

성별과 나이에 따른 성폭력 인식의 차이*

이 선 경 허 용 회 박 선 응†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다양한 나이대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성별과 나이가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전국 260명(여성 = 133명)의 성인들로 구성되었으며, 나이의 분포는 20세에서 69세($M = 41.39$, $SD = 11.20$) 사이였다. 연구 참여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성관계 발생 여부에 따라 두 가지로 구성된 가상적 성폭력 시나리오 중 하나를 읽고, 성폭력 인식과 관련된 5개의 문항(여성 거절의 진심, 여성의 불쾌감, 여성의 성적 만족, 남성 행동의 폭력성, 남성 행동의 남성성)에 답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경우에서 성별과 성관계 여부 간, 그리고 나이와 성관계 여부 간의 이원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나이가 적은 사람에 비해 많은 사람이 성폭력에 대해 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강간통념, 성역할 고정관념 등의 성폭력 인식 관련 척도 간의 관계성을 검토하거나 사법적 관점에서 책임 혹은 양형 판단을 측정하였던 기존 연구와 달리 연구 참여자들에게 성폭력 시나리오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일반적인 성폭력 인식을 측정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점을 갖는다.

주요어 : 성차, 나이차, 성폭력 인식, 데이트 성폭력

* 본 연구는 장훈장학회로부터 후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박선응,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2868, E-mail: sunwpark@korea.ac.kr

성폭력이란 성과 관련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적 행위들을 통칭하는 개념이다(김은경, 엄애선, 2010; 이지연, 이은설, 2005; 임성문, 박갑제, 2013; 장윤경, 2006). 즉, 성을 매개로 한 사건들은 모두 성폭력에 포함될 수 있는데, 강간, 데이트 강간, 성추행, 성희롱, 음란전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배지선, 2003; 서현지, 2011; 조현빈, 2006). 성폭력 방지를 위한 사회 곳곳에서의 노력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부는 성폭력을 '4대 악'의 하나로 지정하여 성폭력 범죄의 방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13년도 6월 19일 자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었으며, 각 경찰서에는 성폭력전담수사팀이 신설되었고 그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의 주요한 단체들 역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구제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방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범죄의 발생 및 그 심각성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상담 통계를 보면, 성폭력 상담 건은 1993년 841건에서 2013년 1,418건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13). 또한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강간·강제추행범죄의 발생은 2009년도 15,693건에서 2013년도 22,31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경찰청, 2013).

성폭력의 위험성이 나날이 가중되는 현실을 반영하듯, 학계에서도 성폭력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김선영, 1989; 김영미, 2011; 김재엽, 이순호, 최지현, 2011; 오숙희, 강희순, 김윤희, 2010; 윤병해, 고재홍, 2006; 이석재, 최상진 2001; Abbey, McAuslan, & Ross, 1998; Johnson, Kuck, & Schander, 1997; Kopper, 1996; Maynard & Wiederman, 1997; Shearer, Hosterman, Gillen, & Lefkowitz, 2005). 이러한 흐름에 더해, 본 연구는 연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상황을 이용하여 성별과 나이가 성폭력 인식에 끼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성폭력 인식과 관련된 기존 연구 변인들

성폭력 인식 관련 기존 연구들은 강간통념, 성역할 태도, 양가적 성차별 태도 등을 성폭력 인식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로 보고하고 있다(Burt, 1980). 강간통념이란 성적 관계에 관한 잘못된 인식들(예를 들어, '어떤 여자들은 성폭행 당하는 것을 즐긴다'라는 것과 같은 인식)을 의미하는데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벗어내는 유의미한 요인 중 하나로 널리 연구되었다. 구체적으로, 강간통념은 성폭력 가해 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이석재, 최상진, 2001). 강간통념은 또한 성적인 공격성과도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내었으며(박경, 2008), 음란물 추구 성향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고재홍, 지영단, 2002; 이건호, 강혜자, 2005; 이인숙, 2013). 강간통념이 높은 남자의 경우 데이트 상대를 더 많이 통제하려 하였으며, 실제로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도 더 많았다(이지연, 이은설, 2005).

성역할 태도란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 기대와 성역할 가치관에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백선미, 2005; 이은숙, 강희순, 2014). 즉, 남성은 남성다워야 하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한다는 식의 성 고정관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성역할 태도는 강간통념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을 둘러싼 그릇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실제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성폭력 사건의 발생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책임을 더 많이 부여하고(김복태, 2001), 성폭력에 대해 보다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은숙, 강희순, 2014). 또, 남자 대학생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는 데이트 성폭력 허용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심정신, 이영숙, 오숙희, 2012; 윤진, 양승연, 박병금, 2012). 김은경과 엄애선(2010)은 어렸을 때 가정폭력을 목격하는 것이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며 성인기의 데이트 성폭력의 가해 및 피해 경험으로 이어짐을 보고

하였다. 한편 유재두(2009)는 성범죄자 집단과 일반인 집단 간 성역할 고정관념상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폈는데, 그 결과 성범죄자 집단이 남성 우월주의 및 여성 순결에 관한 이데올로기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가적 성차별 태도 역시 성폭력 인식과 관련이 있다.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론(ambivalent sexism theory; Glick & Fiske, 1996, 2001)에 따르면 성차별적 태도는 적대적인 태도와 온정적인 태도로 구분될 수 있는데, 적대적인 태도란 남성 지배적인 분야에 여성이 접근하는 데 대한 적대적 반응을, 온정적인 태도란 성역할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여성들에 대한 호의적 반응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윤병해와 고재홍(2006)의 연구에 참여했던 고등학생들은 가상 성폭력 사례를 읽고 성폭행 발생에 대해 피해 여성이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또 가해 남성이 얼마나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평정하였다. 연구 결과, 온정적 성차별 태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피해 여성에게 더 많은 책임을 물었으며 여성을 더 비난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적대적 성차별 태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피해 여성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피해 여성이 더 비난 받아야 하며, 남성이 처벌을 덜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성별 및 나이와 성폭력 인식

성별과 나이는 대부분의 심리학 연구에서 기본적으로 수집하는 정보이다. 성폭력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이 두 변인은 대부분 수집되었고, 종종 다른 성폭력 인식 관련 변인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보고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강간통념을 더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혜리, 2007; Feild, 1978). 남성이 여성보다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을 더 낮게 보았으며, 피해자에 대해서 더 낮은 동정심을 보였다(김복태, 2001; Feild, 1978;

Krulowitz, 1981). 이석재와 최상진(2001)의 연구에서 남녀 대학생들은 성적 맥락의 시나리오를 읽고 성폭력 인식 관련 문항들(폭력성, 책임 귀인, 피해자의 성경험, 피해자의 음란성, 여성 행동에 대한 오해)에 답변하였다. 그 결과, 단일한 성폭력 상황을 지각함에 있어 성차가 드러났다. 즉, 남성은 여성보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솔함 및 이전의 성경험 가능성을 높게 지각하였으며, 여성의 성관계 거절의 진심 여부를 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역시 성폭력 인식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나이와 성역할 고정관념, 강간통념 수용 간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보고된 사례가 있으며(백선미, 2005; 안옥희, 박인진, 1993), 대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데이트 성폭력 경험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남현미, 2003).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강간통념, 성 관련 속설을 더 많이 수용하였으며(김상원, 1998; 김재엽 등, 2011), 성희롱 행동에 보다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인, 손영미, 김효창, 2006).

기존 연구들의 한계

성별과 나이가 대다수 성폭력 인식 관련 연구들의 ‘공통 변인’으로서 수집되고 그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과 나이가 연구의 핵심 주제로서 다루어진 경우는 매우 드물며, 두 변인이 성폭력 인식에 끼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는 저자들이 아는 한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즉, 성폭력 인식에 관한 연구에서 성별과 나이라는 변인은 지속적으로 측정되고 분석되었으면서도 상당히 주변적인 위치에 머물러 왔다는 것이다.

특히 성차에 비해 나이차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욱 외면되어 왔는데,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청소년 집단, 대학생, 중년 여성 등 한정된 나이대의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고재홍, 지영단, 2002; 김재엽 등,

2011; 김정인 등, 2006; 성주의, 2002; 신혜선, 2003; 호선민, 2009). 다만, 정순돌, 배은경, 최혜지(2012)의 연구에서는 성폭력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성역할 태도의 나이 차이를 설명하고자 세대(generation) 개념을 도입하여 가부장제적 가치관 등이 세대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나이와 성폭력 인식 간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논했던 것은 아니기에, 양자 간의 관계성을 세밀히 고찰하지는 못하고 있다.

기존 성폭력 인식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강간통념, 성역할 고정관념 등의 변인들을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고 해당 척도 점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성폭력 관련 인식들을 탐색하고자 하였다(김선영, 1989; 김은경, 엄애선, 2010; 박선미, 송원영, 2012; 성주의, 2002; 신혜선, 2003; 이지연, 이은설, 2005; 임성문, 박갑제, 2013; 임수진, 2012; Koss & Gaines, 1993; Muehlenhard & Linton, 1987). 이에 비해 가상의 혹은 실제로 있었던 성폭력 사건의 시나리오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그로부터 구체적인 성폭력 인식 양상을 파악하고자 했던 연구는 드물며, 그마저도 성차에 대한 고려만이 이루어졌을 뿐, 나이라는 변인은 구체적으로 다루어진 바가 없다(김은지, 박지선, 2011; 윤병혜, 고재홍, 2006; 이석재, 최상진, 2001; Jones & Olderbak, 2014; Xenos & Smith, 2001). 한편, 시나리오를 사용했던 몇몇 연구의 경우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던 통제 시나리오 없이 성폭력이 발생했던 한 가지 시나리오만을 제시했기 때문에(고혜리, 2007; 윤병혜, 고재홍, 2006; 이석재, 최상진, 2001) 연구 결과로 드러난 성폭력 인식의 양상이 성폭력이라는 상황에 대한 인식 차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일상적인 남녀 행동 방식에 대한 인식 차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성폭력 인식을 측정하고자 하였던 기존 연구 중에는 실제 성폭력 사건 사례에 가깝도록 구성된

시나리오를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시한 후 그로부터 연구 참여자들이 지각하는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결, 양형 판단, 혹은 책임성을 살펴보는 등 사법적인 관점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지각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들이 있었다(이지혜, 박우현, 이수정, 2014). 제시된 시나리오에 대해 고소·고발이나 수사, 판결 및 처벌 등의 사법적인 요소들에 집중하는 것은 그 나름의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를 잡아내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상기 열거된 한계점들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크게 네 가지 요소에서 변화를 주었다. 첫째, 본 연구는 성별과 나이라는 변인이 성폭력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점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20대부터 60대까지의 남성과 여성이 모집되었다. 둘째, 성폭력 인식 관련 척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했던 대부분의 기존 연구 방법과는 달리, 성폭력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구체적인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성폭력이 발생했던 시나리오를 발생하지 않았던 통제 시나리오와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종속변인의 내용에서도 차이를 두었다. 기존의 연구들이 책임, 양형 판단 등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 반해, 본 연구는 보다 일상적인 인식들(예를 들어, '여자의 의사에 반해 성행위를 갖는 것이 얼마나 남성적인지'와 같은 인식)를 포함하였다.

연구 개요

본 연구는 성별과 나이가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상적으로 구성된 성적 맥락의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성폭력과 관련된 인식들을 측정하였다. 한국성폭력상담소(2013)에 따르면, 2013년 접수되었던 1,418건의 상담 사례 중 친족, 친·인척, 연인 등 지인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1,205건(85%)으로 전체 성폭력 피해 가운

데 가장 그 비중이 높았다. 특히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동반하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임채영, 정소영, 이명신, 2010; Jackson, Cram & Seymour, 2000; Kaura & Lohman, 2007), 결혼 관계에서보다 데이트 관계에서 성폭력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며, 데이트 성폭력이 결혼 후 부부 간의 성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크다고 볼 수 있다(임채영 등, 2010). 이에 본 연구의 시나리오는 데이트 성폭력적인 상황으로 연출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강제적으로 성관계가 발생하거나 하지 않았던 조건에 무선적으로 할당되어 해당 시나리오를 읽고, 시나리오 속의 등장인물들에 대한 5가지 문항에 응답하였고, 성별과 나이, 시나리오 속의 성관계 여부가 5가지 종속변인에 끼치는 영향이 분석되었다. 강간통념, 성역할 태도, 양가적 성차별 태도, 성폭력 책임 판단 등에서 확인된 기존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여성에 비해서는 남성이, 나이가 어린 사람에 비해서는 많은 사람이 성폭력을 더 관대하게 인식하리라는 것이 본 연구의 가설이다.

방 법

대상

전국 성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인사이트(www.invight.co.kr)를 통하여,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의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적립금을 지급하였다. 응답자들은 성폭력 인식과 관련된 문항들과 더불어, 주어진 설문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였는지 확인하는 문항(아래 참조)들에 응답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전체 문항들에 불성실하게 응답하였을 것으로 간주되는 40명의 응답자들이 분석에서 제외되었으며, 그에 따라 최종적으로 260명(남성 = 127명, 여성 = 133명)의 자료가 본 연구에 활

용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평균 나이는 41.39세($SD = 11.20$)였으며, 나이의 범위는 20세에서 69세였다.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는 44명, 30대는 75명, 40대는 76명, 50대 이상은 65명이었다. 거주 지역별 참여인원은 실제 지역별 거주인원을 감안하여 설정하였고, 서울특별시 151명, 부산광역시 34명, 대구광역시 22명, 인천광역시 28명, 광주광역시 16명, 대전광역시 9명이었다.

연구 절차

연구 참여자들은 온라인 설문지상에 성별, 나이, 거주 지역 등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입력하였으며, 뒤이어 데이트 상황과 관련된 시나리오를 보고 그와 관련된 질문들에 응답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감추고자 '사랑을 둘러싼 이성 간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가상의 설문 제목을 참여자들에게 제시하였으며, 해당 조치의 신빙성을 확보하고자 본 시나리오(성관계 여부가 조작된 두 편의 시나리오)에 앞서 데이트 상황과 관련된 두 종류의 허위 시나리오를 모든 연구 참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각 참여자들은 총 세 종류의 시나리오(허위 시나리오 2편 및 본 시나리오 1편)를 읽고 각 시나리오마다 할당된 문항들에 응답하였다. 모든 설문 응답 절차를 마친 연구 참여자에게는 온라인 설문지의 마지막 장을 통하여 본 연구의 실제 목적에 대해 설명하였다.

측정 도구

성폭력 인식 측정에 활용된 시나리오는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 A와 남성 B 간의 데이트 상황을 기술하고 있는데, 데이트 장면, 데이트가 종료된 후 남성이 여성의 집까지 여성을 배웅해주는 장면, 두 사람이 여성의 집에서 차를 마시다 키스와 애무를 하는 장면, 다음으로 여성의 거절 및 성관계 여부와 관련된 맥락으로 구성되

어 있다. 시나리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여성 A와 남성 B는 연인 사이로, 데이트를 하기 위해 만났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어느덧 시간이 깊어 A와 B는 귀가하기로 했다. 이에 B는 A의 자취방 앞까지 A를 데려다 주었다. 헤어지기 전에, A와 B는 잠시 차 한 잔을 마시기로 했고 두 사람은 A의 자취방으로 들어갔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신 뒤, B는 A에게 키스를 하고 애무했다. 그러나 잠시 후, A는 B를 손으로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말했다. B가 가까이 오려 하자 A는 손을 내저었으나, 결국 A와 B는 성관계를 가졌다(A는 손을 내저었고, 결국 A와 B는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¹⁾

본 시나리오와 함께 제시된 구체적인 성폭력 인식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기존 성폭력 연구를 참고(김선영, 1989; 박유정, 2000; 정진경, 1990; Bushman, Bonacci, Van Dijk, & Baumeister, 2003; Muehlenhard & Linton, 1987)하여 아래의 5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참여자들은 7점 척도를 이용하여 높은 점수가 높은 동의를 나타내는 방향으로 응답하였다.

(1) 거절의 진심: “여성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얼마나 진심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여성의 불쾌감: “남성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성은 불쾌감을 얼마나 느꼈다고 생각하십니까?”

1) 서론에서 언급하였듯 성과 관련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는 모든 가해 행위들은 기본적으로 성폭력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성의 분명한 거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가 이루어진 내용이 포함된, 즉 성관계가 있었던 조건인 시나리오는 성폭력 사례에 해당한다. 한편 성관계가 없었던 조건의 경우에는, 키스나 애무 과정에서 여성의 동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후 맥락에 따라 성추행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성의 명시적 거절 의사 표현 이후 남성의 성적 가해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성폭력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다(김한균, 2013; 한국성폭력상담소, 2013).

(3) 여성의 성적 만족: “성관계를 가진 (가지지 않은) 후 여성은 성적인 만족을 얼마나 느꼈다고 생각하십니까?”

(4) 남성 행동의 폭력성: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가지지 않은) 남성의 행동은 얼마나 폭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남성 행동의 남성성: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가지지 않은) 남성의 행동은 얼마나 남자답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시나리오에 대한 응답을 완료한 후 다음 페이지에서 참여자들은 해당 시나리오를 떠올리고 그에 대해 두 가지 문항, 즉 B의 성별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시나리오에서 남녀 간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응답하였는데, 해당 문항들은 상대적으로 불성실한 응답자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결 과

본 연구의 목적은 성별과 나이가 성폭력 인식에 끼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시나리오의 성관계 여부가 조작되었고, 참여자들은 주어진 시나리오를 읽은 후 성폭력 인식과 관련된 5가지 문항에 답하였다. 연구에서 측정된 각 종속변인들의 기술통계는 표 1과 같다.

각 종속변인별로 삼원 상호작용(성관계 여부 × 성별 × 나이)을 분석한 결과, 삼원 상호작용은 오직 한 문항에서만 유의미하였고 다수의 유의미한 이원 상호작용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두 개의 이원 상호작용, 즉 ‘성관계 여부 × 성별’과 ‘성관계 여부 × 나이’의 이원 상호작용을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후자의 상호작용 검증을 위해 성관계 발생 조건은 +1로, 성관계 비발생 조건은 -1로 코딩하였고, 나이는 평균 중심화(mean centering)하였다. 유의미한 삼원 상호작용의 부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표 1. 성관계 여부 및 참여자 성별에 따른 종속변인 기술통계

종속변인 문항	성관계 여부	성별		계
		남 (n = 127)	여 (n = 133)	
여성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얼마나 진심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	3.63(1.40)	4.42(1.50)	4.02(1.50)
	무	4.93(1.41)	5.04(1.44)	4.99(1.42)
	계	4.24(1.55)	4.74(1.50)	4.50(1.54)
남성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성은 불쾌감을 얼마나 느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	3.55(1.45)	4.43(1.35)	3.98(1.46)
	무	4.25(1.16)	4.46(1.25)	4.36(1.21)
	계	3.88(1.36)	4.44(1.29)	4.17(1.35)
성관계를 가진 (가지지 않은) 후 여성은 성적 인 만족을 얼마나 느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	4.63(1.17)	3.91(1.47)	4.27(1.37)
	무	3.40(1.24)	3.81(1.32)	3.62(1.29)
	계	4.05(1.34)	3.86(1.40)	3.95(1.37)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가지지 않은) 남성의 행동은 얼마나 폭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	3.97(1.36)	4.60(1.46)	4.28(1.44)
	무	2.85(1.55)	3.00(1.52)	2.93(1.53)
	계	3.44(1.55)	3.78(1.69)	3.62(1.63)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가지지 않은) 남성의 행동은 얼마나 남자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유	4.15(1.36)	3.25(1.55)	3.70(1.52)
	무	4.87(1.30)	5.44(1.24)	5.17(1.29)
	계	4.49(1.37)	4.37(1.78)	4.43(1.59)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	유	4.33(1.07)	3.54(1.16)	3.94(1.18)
	무	4.05(0.65)	4.15(0.50)	4.10(0.58)
	계	4.19(0.90)	3.85(0.93)	4.02(0.93)

는 논의에서 언급하도록 하겠다.

표 2에서 보이듯, 5개의 종속변인 모두에서 성관계 여부의 주효과가 유효했다. 즉, 성별과 나이가 별도의 변수로 고려되지 않았을 때,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성관계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성관계가 일어난 경우에 (1) 여성의 거절이 덜 진실하다고, (2) 여성이 불쾌감을 덜 느꼈을 것이라고, (3) 여성이 성적으로 더 만족스러웠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성관계를 가진 남성의 행동이 (4) 더 폭력적이고, (5) 덜 남자답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 주효과들은 대부분의 경우 상호작용에 의해 제한되었기 때문에 단순효과 분석을 통해서 주어진 결과의 의미를 해석하

였다.

거절의 진심

시나리오상에서 남성의 성관계 시도에 대한 여성의 거절이 얼마나 진심이었느냐는 문항의 경우, 성관계 여부 × 성별 상호작용의 유의수준이 경계에 있었고(표 2), 그에 따라 단순효과를 확인하였다. 표 1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일단 성관계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면 남성 참여자들은 여성 참여자들에 비해서 여성의 거절이 진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F(1, 256) = 9.91, p = .002$. 하지만, 성관계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에

표 2. 각 종속변인에 대한 주효과 및 상호작용

종속변인 문항	성관계 여부 × 성별				성관계 여부 × 나이			
	독립변인	F	p	η^2	독립변인	β	p	R ²
여성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얼마나 진심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관계 여부	29.32	.000	.103	성관계 여부	-.32	.000	.102
	성별	6.33	.012	.024	나이	-.12	.044	.014
	성관계 여부 × 성별	3.60	.059	.014	성관계 여부 × 나이	-.10	.098	.009
남성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여성은 불쾌감을 얼마나 느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관계 여부	4.94	.027	.019	성관계 여부	-.14	.020	.020
	성별	11.13	.001	.042	나이	-.20	.001	.040
	성관계 여부 × 성별	4.28	.040	.016	성관계 여부 × 나이	-.07	.224	.005
성관계를 가진 (가지지 않은) 후 여성은 성적 만족을 얼마나 느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관계 여부	16.81	.000	.062	성관계 여부	.24	.000	.059
	성별	0.92	.338	.004	나이	.24	.000	.059
	성관계 여부 × 성별	12.17	.001	.045	성관계 여부 × 나이	.18	.002	.032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가지지 않은) 남성의 행동은 얼마나 폭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관계 여부	55.51	.000	.178	성관계 여부	.42	.000	.172
	성별	4.56	.034	.018	나이	-.06	.293	.003
	성관계 여부 × 성별	1.73	.190	.007	성관계 여부 × 나이	-.15	.006	.024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가지지 않은) 남성의 행동은 얼마나 남자답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관계 여부	73.61	.000	.223	성관계 여부	-.46	.000	.212
	성별	0.94	.334	.004	나이	.17	.001	.030
	성관계 여부 × 성별	18.95	.000	.069	성관계 여부 × 나이	.24	.000	.057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	성관계 여부	2.22	.138	.009	성관계 여부	-.08	.152	.007
	성별	9.44	.002	.036	나이	.25	.000	.061
	성관계 여부 × 성별	16.05	.000	.059	성관계 여부 × 나이	.24	.000	.058

는 여성의 거절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에 대해 남녀 참여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1, 256) = 0.19, p = .664$.

성관계 여부 × 나이의 상호작용의 유의수준 역시 경계에 있었고(표 2), 이에 단순효과를 확인하였다. 성관계 여부에 따른 나이의 단순효과 의 경우 성관계가 있었던 조건에서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성관계가 있었을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여자의 거절이 진심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beta = -.22, p = .007$. 성관계가 없었던 조건에서는 나이와 거절의 진심 여부 판단 사이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

았다, $\beta = -.02, p = .803$. 각 조건별 나이와 종속변인 사이의 단순 상관관계는 표 3에 기술되어 있다.

여성의 불쾌감

남성의 성관계 시도를 거절했을 당시 여자가 느꼈을 불쾌감의 경우, 성관계 여부 ×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표 2). 단순효과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성관계가 있었던 조건에서만 발견되었다. 즉, 남성 참여자에 비해서 여성 참여자들이 시나리오 속의 여성이 더

표 3. 각 조건별 나이와 종속변인 사이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나이	-	-.02	-.14	.07	.10	-.08	.01
2. 거절의 진심	-.23**	-	.45***	.24**	-.01	.45***	-.37***
3. 여성의 불쾌감	-.26**	.77***	-	.24**	.24**	.27**	-.54***
4. 여성의 성적 만족	.43***	-.55***	-.50***	-	.15	.27**	.27**
5. 남성 행동의 폭력성	-.25**	.60***	.65***	-.48***	-	-.15	-.63***
6. 남성 행동의 남성성	.45***	-.46***	-.43***	.69***	-.54***	-	.32***
7.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	.40***	-.84***	-.83***	.79***	-.81***	.77***	-

주. 대각선의 우측 상단은 상관계가 없었던 조건($n = 128$)에서의 상관계수이며, 대각선 좌측 하단은 상관계가 있었던 조건($n = 132$)에서의 상관계수이다.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많은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F(1, 256) = 14.86, p < .001$. 상관계가 없었던 경우, 여성의 불쾌감에 대한 남녀 참여자의 판단에는 차이가 없었다, $F(1, 256) = 0.79, p = .375$.

여성의 불쾌감에 대한 상관계 여부 \times 나이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두 독립변인의 주효과는 모두 유의미하였다(표 2). 상관계가 발생했던 상황에 비해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참여자들은 여성이 거절 당시에 느꼈던 불쾌감이 더 높았을 것이라 판단했다. 여성의 불쾌감에 대한 나이의 주효과의 경우 그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유의미한 상호작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관계 여부에 따라 나이의 단순효과의 유의미성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상관계가 있었던 상황에서는 나이와 불쾌감 사이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beta = -.27, p = .001$, 상관계가 없었던 상황에서는 두 변인 사이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기는 했지만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beta = -.13, p = .159$.

여성의 성적 만족

성관계를 가진 (가지지 않은) 후 여성이 느꼈을 성적 만족감의 경우, 상관계 여부 \times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고(표 2), 그에 따라 상관계 여부에 따른 성별의 단순효과를 검증하였다. 표 1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여성 참여자들에 비해 남성 참여자들은 여성이 거절했을지라도 일단 상관계가 발생하면 여성의 성적 만족도는 높을 것이라 판단했다, $F(1, 256) = 10.07, p = .002$. 반대로, 여성 참여자들에 비해 남성 참여자들은 여성의 거절로 상관계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 여성의 성적 만족도는 낮을 것이라 판단했는데, 이 결과의 유의수준은 경계에 있었다, $F(1, 256) = 3.14, p = .077$.

성관계 여부 \times 나이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미하였고, 이에 상관계 여부에 따라 여성의 성적 만족감과 참여자 나이 사이의 단순효과를 검증하였다. 여성의 거절 후 상관계가 발생했던 상황에서 나이가 많은 참여자일수록 여성의 성적 만족도는 높았을 것이라 판단했다, $\beta = .42, p < .001$. 상관계가 없었던 상황에서는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beta = .06, p = .449$.

남성 행동의 폭력성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이 상관계

거절 의사를 표현한 뒤 성관계를 가졌던 (가지지 않았던) 남성의 행동이 얼마나 폭력적인지에 대한 문항의 경우 성관계 여부 ×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지 않았다. 하지만 독립변인의 주효과는 유의미하였다. 즉, 남녀 구분 없이 참여자들은 성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에 비해 발생했던 상황에서 남성의 행동을 더 폭력적이라고 판단하였다, $F(1, 256) = 55.51, p < .001$. 통계적으로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지 않은 가운데 성별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으나 그 해석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성별의 효과를 조건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그 효과가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표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성관계가 발생했던 조건의 경우 남성 참여자들($M = 3.97$)에 비해 여성 참여자들($M = 4.60$)이 성관계를 가진 남성의 행동이 더 폭력적이라고 인식하였다, $F(1, 256) = 6.06, p = .015$. 성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남성 참여자($M = 2.85$)와 여성 참여자($M = 3.00$) 사이의 폭력성 인식에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1, 256) = 0.33, p = .565$.

한편, 성관계 여부 × 나이의 상호작용은 유의미하였고, 그에 따라 단순효과를 검증하였다. 성관계가 발생했던 경우 참여자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역지로 성관계를 가졌던 남성의 행동이 폭력적이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beta = -.21, p = .006$. 성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던 조건에서는 나이와 남성 행동의 폭력성 사이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beta = .10, p = .246$.

남성 행동의 남성성

여성이 성관계 거절 의사를 표현한 뒤 성관계를 가졌던(가지지 않았던) 남성의 행동이 얼마나 남성적인지를 묻는 문항의 경우 성관계 여부 ×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표 2). 단순효과 분석 결과, 성별이 남성성 판단에 끼치는 영향은 성관계가 발생했을 때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모두 유의미하였으나 그 효과는 서로 상

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표 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여성 참여자들에 비해 남성 참여자들은 여성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졌던 남성의 행동이 더 남성적이라고 인식하였다, $F(1, 256) = 14.40, p < .001$. 이와 반대로, 남성 참여자들에 비해서 여성 참여자들은 여성의 거절 후 성관계를 갖지 않았던 남성의 행동이 더 남성적이라고 인식하였다, $F(1, 256) = 5.63, p = .018$.

성관계 여부 × 나이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미하였고, 그에 따라 단순효과를 검증하였다. 성관계가 발생했던 조건에서는 남성 행동의 남성성과 나이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여성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진 남성의 행동이 더 남성적이라고 인식했다, $\beta = .41, p < .001$. 성관계가 없었던 조건에서는 두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beta = -.07, p = .389$.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

마지막으로 다섯 가지 종속변인을 통합하여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이라는 하나의 변수를 생성하였다. 이를 위해 거절의 진심, 여성의 불쾌감, 남성 행동의 폭력성 문항의 점수를 역코딩(recoding)하였다. 생성된 변수의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을 더 많이 용인함을 나타낸다(Cronbach's alpha = .61).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에 대한 성관계 여부 × 성별의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고(표 2), 이에 따라, 단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성관계가 발생했던 조건에서 남성 참여자들의 성폭력 인식이 여성 참여자들에 비해 더 관대하였다, $F(1, 256) = 25.49, p < .001$. 성관계가 발생하지 않았던 조건에서는 성별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F(1, 256) = 0.43, p = .514$.

성관계 여부 × 나이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미하였고, 그에 따라 단순효과를 검증하였다.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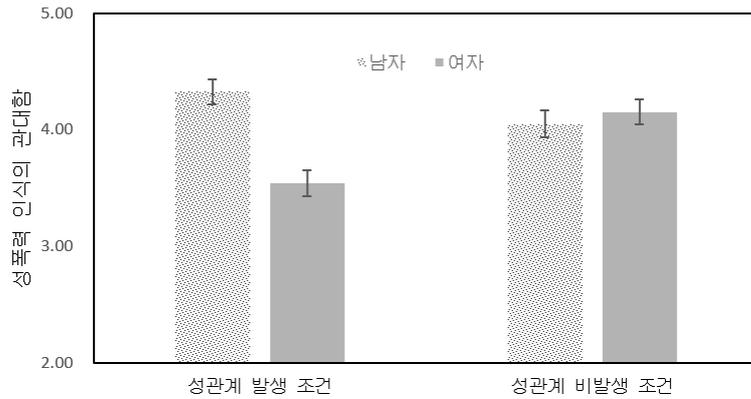


그림 1. 성관계 여부와 성별이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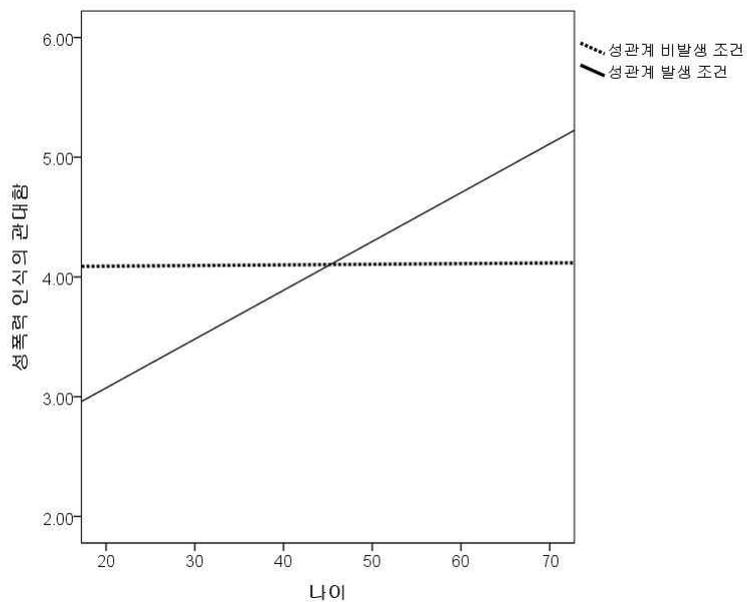


그림 2. 성관계 여부와 나이가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에 미치는 영향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성관계가 발생했던 조건에서는 성폭력 인식의 관대함과 나이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beta = .49, p < .001$. 즉,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성폭력에 대해 더 관대한 인식을 보였다. 성관계가 없었던 조건에서는 두 변인 사이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beta = .01, p = .940$.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별과 나이가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일상적인 테스트 끝에 성폭력이 발생했는지의 여부에 따라 두 종류의 시나리오를 참여자들에게 제시하고, 그로부터 성폭력 인식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성별과 나이, 그리고 성관계 여부 간의 삼원 상호작용은 대부분 유의미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문항들에서 성별과 성관계 여부 간, 나이와 성관계 여부 간 이원 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자면 성관계가 있었던 조건에서 남성 참여자들은 여성 참여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나리오 속의 여성의 거절이 진심이 아니라고, 거절 당시 여성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관계 후 여성의 성적 만족감은 높았을 것이라고, 상대 여성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진 남성의 행동이 폭력적이지 않고 남성적이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여성의 거절의 진심, 여성의 불쾌감, 남성의 폭력성을 더 낮게, 그리고 여성의 성적 만족과 남성 행동의 남성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성관계가 없었던 조건에서 여성 참여자들에 비해서 남성 참여자들은 시나리오 속의 여성의 성적 만족도(경계 수준)와 성관계를 갖지 않는 남성 행동의 남성성을 더 낮게 평가하였다. 나이와 종속변인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나이가 적은 사람에 비해서 많은 사람이 성폭력을 더 많이 용인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과 관련된 척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고했던 많은 기존 연구들(김선영, 1989; 김은경, 엄애선, 2010; 박선미, 송원영, 2012; 성주의, 2002; 신혜선, 2003; 이지연, 이은설, 2005; 임성문, 박갑제, 2013; 임수진, 2012; Koss & Gaines, 1993; Muehlenhard & Linton, 1987)과 달리 성폭력 시나리오를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성폭력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파악하려 하였다.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활용하는 이러한 연구 패러다임은 성폭력이나 애정 관계 등 실험 장면에서 연구자가 임의적으로 구현해낼 수 없는 현상들을 연구하는 데 있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Cooper, 1976; Darroch & Steiner, 1970; Jones & Olderbak, 2014). 또한 성폭력이 발

생했던 시나리오만을 제시했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았던 통제 시나리오도 연구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성별과 나이가 갖는 인식의 차이가 대부분 성폭행이 없었던 상황이 아니라 성폭력이 있었던 상황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관찰된 성폭력 인식에 대한 성별과 나이의 효과가 일상적인 남녀 행동에 대한 판단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님을 가리킨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별 × 나이 × 성관계 여부 간의 삼원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관계가 일어나지 않았던 조건에서는 성별과 나이의 영향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삼원 상호작용의 부재는 성관계가 일어났던 조건에서 성별과 나이 사이의 이원 상호작용이 유의미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성별이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젊은 사람일수록 성폭력에 대해 더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여성과 남성이 갖는 성폭력 인식의 차이(남성이 성폭력에 더 관대함)는 나이가 낮아져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청소년, 대학생 등 한정적인 연령대의 연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인식을 측정했을 때, 여성에 비해 남성이 보다 더 관대한 성폭력 인식을 드러냈다고 보고한 기존의 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이며(김성우, 2011; 윤병해, 고재홍, 2006), 다양한 연령대에 걸쳐 성폭력 인식상의 성차가 비교적 일관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성폭력 인식에서 드러난 성차는 유교적 가치관, 가부장제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 문화 내 남녀 차별적인 풍토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고혜리, 2007; 신상숙, 2001; 장윤경, 2002; Check & Malamuth, 1983). 즉, 한국 사회에 잔존하는 가부장제적 요소들은 사회 구성원들이 강간 통념,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성차별적 태

도 등을 수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데, 그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남성 본위적인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관대한 성폭력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성폭력 인식에서 드러나는 나이 차이는 과거 근대 사회를 경험하였던 이전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에 비해 전통적인 성 인식에 보다 더 익숙하다는 점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김명소, 한영석, 이현주, 2006).

앞서 지적한 바 있지만,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성별과 나이, 그리고 성관계 여부 간 삼원 상호작용 효과의 부재는 시간이 흐를수록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엄격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여러 세대에 걸쳐 성폭력 인식에서의 성차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남성 본위적인 사회적 풍토가 특정 연령층에 한정되지 않고, 전 연령대에 걸쳐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근대를 지나 현대 사회로의 점진적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여권(女權)은 비약적으로 신장하였고, 사회 전반적으로 양성 평등적인 분위기가 상당 부분 고취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 내부에서도 성별 간 성폭력 인식상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남성 우월적인 분위기들이 세대 전반에 걸쳐 여전히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뜻하고, 이는 다시 세대 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회화(socialization)의 영향력이 결국 성폭력 인식의 대물림을 유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Raffaelli & Ontai, 2001; Shtrarkshall, Santelli, & Hirsch, 2007).

이렇듯 여전히 성별과 나이에 따라 성폭력 인식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 전반에 걸쳐 보다 효과적인 성교육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특히 이러한 성차가 비교적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난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보육원이나 학교, 가정 등 비교적 인생 초기의 사회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들에서 행해지는 성 관련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

다. 물론 전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성폭력 관련 인식이 엄격해진다는 점은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던 성교육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성폭력 인식에서 성차가 발견된다는 점은 앞으로의 성교육이 성별에 따른 성 인식 차이의 간극을 좁힐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이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성폭력 인식에 대한 나이 차이가 세대적 차이인지, 발달에 따른 변화인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 성폭력 인식이 연령대에 걸쳐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주로 세대별로 다르게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의 질적, 양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발달적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성폭력 인식과 관련된 종단적 연구를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최근 성폭력 인식과 관련한 국내 연구들은 성폭력 사건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하나로 '피해자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양동옥, 국혜윤, 백현경, 윤가현, 2012; 이지혜 등, 2014). 즉, 성폭력 사건의 지각 양상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해자 요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 행위, 옷차림, 도발 유무 등의 요소에도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시나리오 속의 피해자 관련 정보를 다양하게 조작하여 피해자 요인이 성폭력 사건 인식에 끼치는 영향이 관찰자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은 성폭력 인식과 관련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유용할 것이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경찰청 (2013). 2013 범죄통계. <http://www.police>

- .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197에서 2014, 10, 27 자료 얻음.
- 고재홍, 지영단 (2002). 청소년의 음란물 접촉과 잘못된 강간통념 수용 간의 매개변인과 조정변인의 역할. 청소년상담연구, 10, 87-105.
- 고혜리 (2007). 남녀 대학생의 성폭행 사건 지각 차이에 대한 분석: 성역할 고정관념과 강간통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명소, 한영석, 이헌주 (2006). 한국 여성의 페미니즘 성향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차이 및 페미니즘 성향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83-105.
- 김복태 (2001).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공감 능력 및 성폭력 사건 지각의 차이.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상원 (1998). 한국 여성의 성 의식에 관한 계층별 비교 연구. 경기교육논총, 7, 5-72.
- 김선영 (1989). 강간에 대한 통념의 수용에 관한 연구: 경찰, 의사, 교사, 법조인, 상담원, 언론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성우 (2011). 대구지역 전문대학생들의 성폭력 인식도 및 성교육이 성폭력 대처에 미치는 관련요인. 한국학교보건교육학회지, 12(2), 13-27.
- 김영미 (2011). 데이트 상황에 대한 성적 의도 평정의 성별 차이.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은경, 엄애선 (2010).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데이트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759-777.
- 김은지, 박지선 (2011).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태도: 성역할에 대한 인식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법정, 2(2), 171-183.
- 김재엽, 이순호, 최지현 (2011). 성인남성의 음란물 집착, 강간통념 수용과 성폭력 가해의 관계.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8(단일호), 65-92.
- 김정인, 손영미, 김효창 (2006). 성별 및 성희롱 경험에 따른 성희롱 통념과 성역할 관련 태도들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4), 377-397.
- 김한균 (2013). 개정형법상 강간죄 및 유사강간죄 해석·입법론. 형사법연구, 25(3), 81-103.
- 남현미 (2003). 대학생 데이트성폭력 실태와 가해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 경 (2008). 과잉 남성성과 성적 공격성간의 관계: 공감 및 강간통념의 중재 및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519-536.
- 박선미, 송원영 (2012). 성폭력에 대한 통념과 성관련 경험이 여대생의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2), 265-280.
- 박유정 (2000). 대학생의 성고정관념과 성역할정체감 및 자기의식의 관계.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배지선 (2003). '성폭력' 개념 확장과 '성폭력' 경험 인식 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백선미 (2005). 성역할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현지 (2011). 성폭력피해자의 귀인성향과 자아탄력성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성주의 (2002). 대학생들의 성관련 태도와 정보출처에 대한 분석연구. 목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상숙 (2001).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여성과 사회, 13, 6-43.
- 신혜선 (2003). 직장내 성희롱 인식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심정신, 이영숙, 오숙희 (2012).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식도 및 성폭력 허용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8(2), 117-125.
- 안옥희, 박인전 (1993). 도시주부의 성역할 태도와 가정관리에 대한 가치의식이 가사노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1(4), 1-21.
- 양동욱, 국혜운, 백현경, 윤가현 (2012). 참가자의 성별, 피해 여성의 옷차림 종류와 음주량

- 수준에 따른 성폭력 책임 귀인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323-345.
- 오숙희, 강희순, 김윤희 (2010). 남·녀 대학생의 강간통념 수용도,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4(2), 249-257.
- 유재두 (2009). 성범죄자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5(2), 149-182.
- 윤병해, 고재홍 (2006).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차이: 강간통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1-19.
- 윤진, 양승연, 박병금 (2012). 가정폭력경험,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 열등감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6), 79-107.
- 이건호, 강혜자 (2005). 강간통념 수용도, 성역할 태도 및 음란물 접촉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3), 23-40.
- 이석재, 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97-116.
- 이은숙, 강희순 (2014).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성, 성폭력 인식도, 성폭력 허용도 및 데이트 성폭력 경험. 동서간호학연구지, 20(1), 48-56.
- 이인숙 (2013). 대학생들의 인터넷 음란물 추구성과 성폭력(강간) 통념 수용 태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6), 2852-2861.
- 이지연, 이은설 (2005).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와 가해에 대한 설명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265-282.
- 이지혜, 박우현, 이수정 (2014). 성폭력사건의 피해자 요인이 배심원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8(2), 25-40.
- 임성문, 박갑제 (2013).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 경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1), 45-68.
- 임수진 (2012).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의 성폭력 태도에 미치는 영향: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7(3), 347-361.
- 임채영, 정소영, 이명신 (2010). 대학생의 폭력인식이 데이트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5, 147-179.
- 장윤경 (2002).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윤경 (2006). 유형별 성폭력: 데이트, 스토킹. 한국성폭력상담소 발간 자료. 148-154.
- 정순돌, 배은경, 최혜지 (2012). 세대별 부양의식 및 성역할인식 유형. 한국가족복지학, 17(2), 5-23.
-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5(1), 82-92.
- 조현빈 (2006). 성폭력과 성폭력 피해자 심리의 이해. 한국범죄심리연구, 2(2), 39-59.
- 한국성폭력상담소 (2013). 201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현황. <http://www.sisters.or.kr/index.php/subpage/pds/1>에서 2014, 10, 27 자료 얻음.
- 호선민 (2009). 남·녀 대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Abbey, A., McAuslan, P., & Ross, L. T. (1998). Sexual assault perpetration by college men: The role of alcohol, misperception of sexual intent, and sexual beliefs and experienc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7*(2), 167-195.
- Burt, M. R. (1980). Cultural myths and supports for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2), 217-230.
- Bushman, B. J., Bonacci, A. M., Van Dijk, M., & Baumeister, R. F. (2003). Narcissism, sexual refusal, and aggression: Testing a narcissistic reactance model of sexual coerc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5), 1027-1040.
- Check, J. V., & Malamuth, N. M. (1983). Sex role stereotyping and reactions to depictions of

- stranger versus acquaintance ra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2), 344-356.
- Cooper, J. (1976). Deception and role playing: On telling the good guys from the bad guys. *American Psychologist*, 31(8), 605-610.
- Darroch, R. K., & Steiner, I. D. (1970). Role playing: An alternative to laboratory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38(2), 302-311.
- Feild, H. S. (1978). Attitudes toward rape: A comparative analysis of police, rapists, crisis counselors, and citize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2), 156-179.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491-512.
- Glick, P., & Fiske, S. T. (2001). An ambivalent alliance: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s complementary justifications for gender inequality. *American Psychologist*, 56(2), 109-118.
- Jackson, S. M., Cram, F., & Seymour, F. W. (2000). Violence and sexual coercion in high school students'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5(1), 23-36.
- Johnson, B. E., Kuck, D. L., & Schander, P. R. (1997). Rape myth acceptance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 multidimensional analysis. *Sex Roles*, 36(11-12), 693-707.
- Jones, D. N., & Olderbak, S. G. (2014). The associations among dark personalities and sexual tactic across different scenario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9(6), 1050-1070.
- Kaura, S. A., & Lohman, B. J. (2007).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relationship satisfaction, mental health problems, and acceptability of violence: A comparison of men and wo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22(6), 367-381.
- Kopper, B. A. (1996). Gender, gender identity, rape myth acceptance, and time of initial resistance on the perception of acquaintance rape blame and avoidability. *Sex Roles*, 34(1-2), 81-93.
- Koss, M. P., & Gaines, J. A. (1993). The prediction of sexual aggression by alcohol use, athletic participation, and fraternity affili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8(1), 94-108.
- Krulwicz, J. E. (1981). Sex differences in evaluations of female and male victims' responses to assault.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1(5), 460-474.
- Maynard, C., & Wiederman, M. (1997). Undergraduate students' perceptions of child sexual abuse: Effects of age, sex, and gender-role attitudes. *Child Abuse & Neglect*, 21(9), 833-844.
- Muehlenhard, C. L., & Linton, M. A. (1987). Date rape and sexual aggression in dating situations: Incidence and risk fac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2), 186-196.
- Raffaelli, M., & Ontai, L. L. (2001). 'She's 16 years old and there's boys calling over to the house': An exploratory study of sexual socialization in Latino families. *Culture, Health & Sexuality*, 3(3), 295-310.
- Shearer, C. L., Hosterman, S. J., Gillen, M. M., & Lefkowitz, E. S. (2005). Are traditional gender role attitudes associated with risky sexual behavior and condom-related beliefs? *Sex Roles*, 52(5-6), 311-324.
- Shtarkshall, R. A., Santelli, J. S., & Hirsch, J. S. (2007). Sex education and sexual socialization: Roles for educators and parents. *Perspectives on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39(2), 116-119.
- Xenos, S., & Smith, D. (2001). Perceptions of rape and sexual assault among Australia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6(11), 1103-1119.

1 차원고접수 : 2014. 12. 05.

수정원고접수 : 2015. 02. 08.

최종게재결정 : 2015. 02. 09.

The Effect of Gender and Age on the Perception of Sexual Violence

Sun Kyung Lee

Yong Hoe Heo

Sun W. Park

Korea University

We investigated how gender and age affect the perception of sexual violence. Participants whose age ranged from 20 to 69 read one of two scenarios about a dating couple. In one scenario, the man had sex with the woman against the woman's will at the end of the story. In the other scenario, the man did not attempt to have sex once realizing that the woman did not want to have sex. Participants then answered the following five items regarding the two characters in the scenario: sincerity of woman's refusal, woman's unpleasantness, woman's sexual satisfaction, man's violence, and man's masculinity. There were several significant two-way interactions between participant gender and condition, and between participant age and condition. It was found that male and old participants were more likely than their counterparts to score low on sincerity of woman's refusal, woman's unpleasantness, and man's violence, and score high on woman's sexual satisfaction and man's masculinity in the sex condition. No meaningful pattern was found in the no sex condition.

Keywords : sexual violence, dating rape, gender difference, age difference